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Kmin1305@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CD/MPA	(국가) U.S.A
기 간	2011.1. 17~2011.12. 17	[귀국일: 2011년 12월 25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2년 3월 일

신 청 인 : _____(인)

귀국 보고서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 날씨: 기후는 한마디로 “매력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만큼 볼거리도 많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기온도 영하 10 도를 밑도는 때가 많지만, 고온지대의 특성 탓인지 실제 체감온도는 그리 낮지 않으며,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살이 참 기분을 좋게 만드는 기후이다.

기후덕택에 콜로라도 덴버 인근은 낚시, 승마, 스키, 캠핑 등 온간 레포츠의 천국이다. 2011 년도의 경우, 텍사스 주 등 콜로라도 주의 남쪽에 위치한 주들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었는데, 극심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콜로라도 지역으로 여름 피서를 많이 왔다고 들었다. 여름에도 햇살은 따갑지만 수량이 풍부하고 록키 산맥 등의 영향 덕분인지 그리 덥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 같다.

- 캠퍼스 - UCD 는 특이하게도 메트로 대학 등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캠퍼스의 모든 시설 (도서관, 서점, 강의실 등)을 소유 및 이용하고 있었다. 행정대학원(School of Public Affairs)은 UCD 메인 캠퍼스와 큰 도로를 마주하고 있는 곳에 자리한 일명 “Lawrence Street 건물” 5 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의는 SPA 외에 메인 캠퍼스 내 North Classroom, South Classroom 등 다양한 건물에서 수강하였다.

* SPA 사이트 주소: <http://www.ucdenver.edu/academics/colleges/SPA/Pages/index.aspx>

- RTD 를 통한 편리한 통학: 덴버는 지하철을 통한 통학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본인처럼 운전이 서툰 사람도 학교 다니기가 편했다. 코스에 등록한 학생에 한해 스티커가 학기단위로 발부되며, 겨울 및 여름학기에도 별도로 등록여부 확인 후 스티커를 발부해준다. RTD 패스권 비용은 매 학기 등록금에 65 불 가량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학생권 지하철 패스 없이 전철로 통학하는 경우, 본인이 거주했던 Centennial Orchard 역에서 UCDenver 의 역(Colfax Auraria station, Convention Theater center station 등)까지 약 30 분~40 분 정도 소요되며 편도 4 달러 정도로 왕복 8 달러의 비용이 들었던 것 같다.

또한, 자가용으로 통근시에는 학교 여기저기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었다. 위치에 따라 주차요금은 하루에 2 불에서 8 불 정도로 차이가 있는데, SPA 건물은 건물 앞 도로에 시간당 주차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있어, 가능한 한 전철사용가능 거주지역에 살면서 전철로 통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GMP 2년 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 학사운영: 학사 운영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로 강의 출석 체크, 리딩 material 은 물론, 제출해야 하는 리포트의 분량 등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였다. 보통 한 과목당 과제물은 리포트 3~4 개, 시험(리포트로 대체하는 교수님도 계심), 프리젠테이션, 팀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 격주로 주말에 집중적으로 강의(금 5 시-9 시 및 토요일 Am 5 시 -Pm 5 시)하는 프로그램으로 Intensive course 가 있어 1 년간 석사학위에 필요한 9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KDI GMP 학생들의 경우에 잘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학(MPA) 전공자의 경우, Novak 교수님의 management 강의가 좋다는 평이 있다. 강의도 재미있고 수업부담도 그리 크지 않았다.

- 상담매니저제도: 내가 이수한 UC Denver의 MPA (행정학)프로그램은 한국유학생 등을 위한 전담 상담매니저가 있어,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공식 도서관 *사이트주소: <http://library.auraria.edu/>
동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면 J-Store, Harvard Business Review, Cambridge Press 등 학교 코스에서 교수님이 요구하시는 reading material 이나 리포트 작성시 필요한 각종 참고문헌을 구할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었다. 특히 학교 도서관내에서 접속할 경우, 자동으로 협약을 통해 무료로 자료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 사이트와 연결되어 더욱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거 같다.
- SPA 건물 내 Lab 룸: 행정대학원 건물 내 컴퓨터 실이 있는데, 인터넷 등도 한글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편리하고 또 한글로 워드 문서에 작업도 가능하며, 프린트도 무한정 가능하다.
- writing center: 외국인 학생들이 학위과정 코스 이수 시 제출해야 하는 각종 리포트 및 리서치 페이지상의 '문법 및 어휘사용의 미숙함' 등을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 UCD 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미국학생들이 Instructor 로 참여한다. 본인도 캡스톤 페이지 작성시 몇 번 활용하였는데, 내 글을 읽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조언자를 한 명 얻는다는 차원에서 참 유익하다는 생각을 했다. 봄학기부터 계속 활용했다면 더욱 많이 배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http://www.ucdenver.edu/academics/colleges/CLAS/Centers/writing/Pages/TheWritingCenter.aspx>

- Prospectus: 미국 내 도서관 간 협약(interlibrary loan policy)을 통해 서로 책을 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UCD학생이 Auraria Library에서 온라인으로 도서의 대출을 예약하면, UCD Auraria Library에 해당 도서가 없는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소장여부를 즉시 검색하여 원하는 도서가 존재하는 다른 도서관 등을 알려주며, 대출자는 선택하여 원하는 장소에서 책을 받아 볼 수 있다. 단, 원하는 도서의 소장도서관이 인근지역이 아닌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필요한 텍스트북의 경우 미리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 수강신청은 KDI School 에서 만큼 전투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기 있는 과목 등은 경쟁률이 높아서 일찍 신청 해야 수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MPA 를 전공한 본인이 수강한 과목 중 추천하고 싶은 과목은 Lloyd Burton 교수님의 Energy Policy and Law 강의와 MalComn Goggin 교수님의 Policy Process and Democracy 강의이다.

UC Denver의 행정대학원에도 여풍이 심해서 대부분이 여자 교수님인데, 개인적으로 몇 분 안 되는 남자교수님 수업을 인상 깊게 들었던 거 같다.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관련 과목의 지식을 단순히 전달한다는 차원을 넘어 평생을 해당 주제와 관련된 고민과 작업을 해 온 데서 연유하는 연륜을 바탕으로 학생들 각자가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는 수업이라서 좋았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 본인이 귀국하기 전까지 한국 유학생들은 Centennial city에 있는 그린우드 빌리지 또는 그린우드 파크 아파트에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었다. 본인의 경우, 미국에 갈 준비를 하기 전에는 마당이 딸린 주택에 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결국은 현지 선배들의 조언으로 편리한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다.

본인이 거주한 지역의 아파트는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가격대비 (1100불~1350불 내외) 전반적으로 아파트 내부상태도 깨끗하고 fitness센터, 수영장 등 공동시설이 있고, 고장 수리 서비스 등 전반적인 관리가 좋아서 만족스러운 편이었다. 다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2년 거주하는 일반 장기유학생들은 2년째 계약 시에 터무니없이 집값을 올려달라고 해서 결국 이사를 나가시는 사례도 몇 건 있었다. 이는 최근 센테니얼 지역에 IT 센터 등이 개발되면서 인도인 등 IT 관련 종사자들의 아파트 거주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 도서관 활동: 미국 생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지역 도서관들의 장단기 미국 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차별 없는 혜택과 적극적인 배려였다. 덕분에 미국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센테니얼 거주 확인만으로 60 권의 책, CD, 비디오 등을 3주일까지 빌릴 수 있다. (단, DVD 는 1주일간 대여가능, 단 연장도 1주일 단위로 가능),
※ 도서관 카드는 즉시 발급 (주소 및 기본 ID 만 있으면 가능)

본인 거주지인 Centennial 은 'Arapahoe Library District'로 구내에 9 개의 브랜치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 거주 아파트에서 10 분도 안 되는 곳에도 좋은 도서관이 있어 산책 삼아 걸어서 도서관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 사이트 주소: <http://arapahoelibraries.org/ald/>

어학 프로그램 - 각 브랜치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약 2 회씩 신규 미국거주자를 위한 English convers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보통 교육자 외에도 가족 분들이 일정에 맞추어 활용하면 좋다. 본인도 방학 중에는 가끔 참석하였으며 미국 문화와 현지풍습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어 흥미로웠다.

특히, 아이들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주중의 story time 및 주말에도 다양한 공작 등 미술, 독서프로그램, 라마 등 현지 동물들, 인디언문화소개 등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간단히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을 입력함으로써 사전 예약등록이 가능하며,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조기 마감되기도 하니, 미리 한 달 분을 체크하여 월초에 등록해 두면 좋다.

또한, 미국 대부분의 도서관이 봄, 가을 2 회 정기 북 세일을 한다. 대부분의 책이 1 불이며, 아주 다양하고 많은 책이 세일기간에 나온다. 본인도 1 년에 봄, 가을로 2 회 진행하는 '헌책 세일'을 활용하여 원하는 책을 구입하였다. 미국의 책값이 비교적 비싼 편이라 선뜻 다량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편인데, 이 기회를 활용해서 좋은 책을 싸게 살 수 있어 좋았던 거 같다.

- 근교 관광: 미국 전역이 모두 한국적 지형과는 다른 독특한 매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Rocky Mountains 지역은 캐나다나 다른 미국지역의 사람들도 멋진 관광지로 꼽는 곳이다. 몇 개만 꼽아보자면, Rocky Mountains, Auraria Reservoir (낚시, 크랩잡기, 수영 등 가능), Evans Mountain(일년에 2-3 달정도 개장, 미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로로 산양, 마뚝 등 각종 야생동물과 야생 식물을 근거리에서 관찰 가능), Manito Cliff Dwelling(인디언 거주지), Sand Dune(모래 언덕), Gardens of the God, Money museum, 덴버 Mint(사전 예약요), 덴버 Zoo 등이다.

* 대부분 무료이며 근교에 있어 주말을 이용해 당일로 관람 또는 관광 가능하다. 또, 1 년에 특별 holiday 전후에 무료 개장일이 있으므로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다.

Christmas 무렵에는 덴버 시내에서 트리 점등식 및 퍼레이드를 진행하므로 관람해보는 것도 멋진 경험이 될 수 있음 (2011 년의 경우, 12 월 1 일과 3 일에 개최). 본인이 거주하는 개인 아파트나 동네의 주택들에서도 저녁에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참 아름답고 기발한 다양한 트리 장식들을 목격하게 된다. 정말로 크리스마스를 사랑하고 즐기는 국민들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전반적으로 UCDenver 에서의 학업생활과 콜로라도 덴버에서의 생활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좋은 선택을 통해 만족스럽게 잘 지냈다고 생각된다.

우선, 학업생활의 경우, 1년에 9과목을 듣고 캠퍼스도 쉼야 했기 때문에, 봄과 가을학기 중에는 수업과 숙제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여름학기도 이수해야 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필수코스가 5과목인데 KDI School에서 수강한 과목 중에 2과목을 인정받기 때문에 3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덴버지역은 뉴욕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서 그런지 주민들도 여유가 있고 도로도 넓고 아침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교통체증이 거의 없다. 또한 콜로라도의 수도인 만큼 도시가 주는 편리함을 쾌적하게 누릴 수 있다. 또한 근교에 록키 산맥 등 대자연이 수려하게 펼쳐져 있어, 언제라도 자연과 함께 심신을 정화하고 단련할 수 있다는 점은 독특한 매력이라고 할 만하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 (비자문제) UCD는 F1, F2가 아닌 J1, J2 비자를 줍니다. 따라서 허가된 유학을 위한 체류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보통 출국을 위한 한 달의 여유기간을 준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한 뒤 최소 2년이 경과한 뒤에야 미국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재 입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J1 덕분인지, 본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덴버 거주 한국유학생들은 SSN(사회보장번호)란 걸 발급받았습니다. 사실 별 소용은 없었지만, SSN이 카드발급 등 미국 신용생활에 매우 중요한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음식문제) 미국의 식당은 대부분 메뉴판에 적힌 가격 외에 별도로 tax 와 팁을 받기 때문인지, 가격이 비쌉니다. 또 본인도 처음에는 미국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간단한 음식도 사 먹는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유학생들은 주말이나 식사 때 무렵에 수업이 있으면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오거나, 도시락을 지참하고 와서 함께 나눠 먹곤 했습니다. 한국식 식자재의 경우, Aurora 지역에 미도파 및 한아름 마트 등 대형 한국마트가 있어, 거의 모든 식재료를 별 불편 없이 조달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공산품의 경우에는 물 건너간 제품들이라 가격이 한국의 2 배를 상회합니다. 또한 코스트코를 이용하면 비교적 질 좋은 과일, 야채, 고기, 해산물 등 식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하였습니다. 단, 회원카드 발급에 연회비 50 불을 내야 합니다.

□ (도서 구입) 대학원 수업에 필요한 서적들은 아마존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단연코 제일 좋습니다. 아마존은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UCD 학생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도서를 2 일내에 무료로 배달해줍니다. 미국의 경우, 방대한 지역의 특성상 택배 물건은 보통 5 일 ~ 10 일 걸리는 게 보통인데, 아마존은 단 2 일도 안돼서 아주 정확하게 책을 배송해주고 또 반품제도도 확실해서 정말 편리하였습니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간 만큼 학업에 충실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동네 주민들, 교수님들, 같은 클래스메이트 등 다양한 현지인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진짜 미국인의 생각과 미국의 실상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

방학 때는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시는 것도 미국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미래를 품으시되 현재에 충실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시서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Think Rich, Look Poor!

87 HOEGIRO DONGDAEMUNGU, SEOUL 130-868, KOREA

TEL: 82-2-3299-1021 FAX: 82-2-3299-1232

HOME PAGE: <http://www.kdischool.ac.kr>